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두개의 門



17 돈오와 점수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깨달아버리는 것을 ‘돈오(頓悟)’라 하고, 하나하나 수행의 단계를 밟아서 점차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점수(漸修)’라고 합니다. 공간론적으로 해석하면, 돈오는 처음 깨닫는 순간 즉 ‘이것이’ 하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돈오입니다. 모든 것은 공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였다는 사실, 일체유심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것, 즉 인식의 전환,

완벽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오란 시간적으로는 단번에 깨닫는 것이지만 공간적으로는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진리)였음을 깨닫는 것(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였음을 인식(돈오)했지만, 아직 육체적인 습관(버릇)은 남아 있으므로 그 습관을 제거하는 것, 즉 깨달음은 바를 더욱 숙련시켜서 완벽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돈오와 점수는 별개의 것이 아닌 상부상조의 관계로서 깨달음을 보다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즉 깨달음은 더 이상 뒤를 것이 없다는 ‘돈오돈수(頓悟頓修)’와 깨달음 뒤에도 세속적인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뒤야 한다는 ‘돈오점수(頓悟漸修)’에 관한 논쟁입니다. 돈오점수설을 주장했던 분은 고려시대의 선승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었고, 새롭게 돈오돈수설을 주장한 분은 근래 한국의 선승 성철

거된다(頓修)는 것입니다. 즉 깨달았다면 더 이상 뒤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주장은 일정 부분 모두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국사가 돈오점수설을 주장한 것은 이치(논리)로 보면 돈오돈수가 맞지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가 보편적인 인간, 즉 중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돈오돈수보다는 돈오점수가 더 옳다는 것이었고,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설은 보편적인 인간보다는 특수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서, 깨달음 뒤에 또 뒤는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철 스님이 돈오점수를 이해 못한 것도 아니고 보조지눌이 돈오돈수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두 설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그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돈오’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입니다. 보조지눌은 처음 깨달은 것, 즉 깨달음의 첫 단계(초견성)를 ‘돈오’라고 규정했고(그러므로 더 뒤야 한다는 것이고), 성철 스님은 깨달음의 최종 단계, 즉 완벽한 깨달음에 도달한 증오(證悟)의 단계를 돈오로 본 것입니다. 이 논쟁은 이와 같이 돈오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논쟁이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은 무려 800년 동안 한국선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보조지눌의 돈오점수설을 당시(1981) 종정인 성철 스님께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과 스님들이 참여하여 10년 이상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것이 옳다는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매우 진지한 토론이었습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돈오-수행의 단계 없이 단번에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 점수-점진적 수행 통해 미망→깨달음으로 인식 전환

그것을 돈오라고 합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점수(漸修)’의 사전적 해석은 앞의 설명과 같이 점차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논쟁 논쟁과 결부시켜 이야기할 때는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돈오 즉 처음 깨달음을 토대로 하여 점진적으로 더 수행하여 그 깨달음을 완벽하게 해 가는 것을 점수라고 합니다.

(性徹, 1911~1993) 스님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의 저서 <선문정로(禪門正路)>(1981년)에서 보조국사의 돈오점수설은 사실(事實)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설을 논쟁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오점수설(보조지눌의 입장). 수행을 하여 단번에 깨달았다(頓悟)고 해도 그것은 인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더 뒤야 한다. 즉 육체적인 욕구, 욕망 등 평소 길들여진 인간적 습관(습기, 버릇)은 깨달음과 동시에 제거될 수 없는 것이므로 깨달음 뒤에도 더 수행(漸修)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깨달음인 돈오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점수 즉 보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오돈수설(성철 스님의 입장). 깨달은 것(頓悟)과 동시에 정신적인 번뇌 망상은 물론, 육체적 욕구, 욕망, 습관(습기) 등 세속적 인간적인 것들도 모두 다 말끔히 제

고려시대의 유명한 선승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자신의 글 <수심결>에서 돈오와 점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에 두 가지가 있는데 ‘돈오’와 ‘점수’이다. 돈오는 자신의 성품이 바로 법신(진리)이며 부처(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식)이고, 점수는 비록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지만 평소에도 익혀진 육체적 습관은 단번에 제거할 수 없으므로 돈오를 바탕으로 더 뒤야 해서 그 깨달음은 바를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앓은 채로 육신을 벗다

17 방거사의 딸 영조

인도의 유마거사, 한국의 부설거사와 함께 ‘세계 3대 거사’로 추앙받는 방거사(龐居士). 본명이 방은(龐蘊, -808?)인 그는 유마의 화신, 보처대사(補處大士)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선종사에서 위상이 높다. 방거사 가족은 조리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청빈하게 살았으나 아내와 아들, 딸이 모두 도인이었다. 특히 딸인 영조(靈照)는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탁월한 선적인 안목을 가진 것으로 이름이 높다.

한 번은 선정에 들어 있던 방거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렵고 어려우니, 백석(白石)의 유마(油麻: 참깨)를 나무 위에서 뿌림과도 같도다.”

참깨를 나무 위에서 뿌려서는 절대로 씹이 날 수 없듯, 분별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를 암시한다. 아내가 이를 듣고 화답했다.

“쉽고 쉬우니, 침상에서 내려와, 발이 땅을 밟음과도 같도다.”

다만 분별에 서기 어려워질 뿐이니, 본래의 자기를 확인하여 ‘인위적이 조작이 없음’(無爲)이 어찌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다.

그러자 딸 영조도 끼어들었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니, 백초두상조사의(百草頭上祖師意)라!”

“백초(百草)는 온갖 사물이란 뜻이다. 온갖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은 명백히 나타나 있으니, 그것은 어렵다거나 쉽다거나 하는 분별을 떠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 사람이 동일한 견처(見處)를 드러내고 있다.

“아들 있되 장가 안 들고/ 딸은 딸대로 시집가지 않은 채/ 온 식구 모두 다 단란한 중에/ 함께 무생(無生: 불생불멸의 진리의 얘기) 주고 받니.” 라는 방거사의 개승이 말해 주듯, 온 가족이 깨달음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속에 있으면서도 청정한 가정생활을 영위한 방거사가 마침내, 입적을 예고하고 영조에게 말했다. “인생이란 꿈 같고 허깨비 같은 것이다. 너는 너

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고는 지금이 몇 시쯤 되었는지, 밖에 나가 해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일했다. 밖에 나갔던 영조가 돌아와 말했다.

“벌써 정오가 될 시간이지만 마침 일식중이어서 확실치 않으니, 아버님이 직접 나가 보시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았으나 일식이 아닌 것 같아 이상히 여긴 그가 방에 돌아왔다. 어느덧 딸은 자리에 앉아 함장한 자세로 숨을 거둔 뒤였다.

이를 본 방거사는 웃으며 중얼댔. “내 딸이지만, 참으로 민첩하군!”

방거사는 딸의 장례를 위해 죽음을 일주일 연기했고, 그가 죽을 때는 마침 그 고을(襄陽) 태수 우적이 찾아왔다. 우적은 그의 친구이자 사법제자였고, 후일 <방거사어록>을 편찬한 사람이다.

이 때 거사와 딸의 시신은 암굴에 있고, 아내와 아들은 집을 지키고 있었다. 거리가 너무 먼 관계

온가족이 ‘좌탈입망’ 경지 도달

‘생사일여’ 가르침 온몸으로 보여

로 우적은 거사를 다비해 장사지내고, 그 후에 사 람을 보내 가족에게 알렸다.

“늙은이의 장례도 안 지내주고 먼저 가다니...” 딸을 나무란 방거사의 아내는, 들에 나가 있는 아 들을 찾아가 부음을 전했다.

이때 아들은 ‘앗!’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잠시 뒤에 보니 어느덧 선 채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노파마저 어디론가 사라져 자취를 풍겼다. ‘앉아서 죽고(坐脫)’ ‘서서 죽는 것(立亡)’을 자재히 해낸 방거사 가족의 예는 고급에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조는 제방의 선원을 주유하는 아버지 방거사를 따라 다니며 모셨다. 대나무 조리를 저자에 내 다 팔아 아버지를 봉양하고 온갖 수발을 들었다. 구체적인 수행이력은 알 수 없지만, 영조는 방거사로 부터 선리(禪理)를 배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여러 선어록의 기록이다.

김성우 기자(buddhapia5@buddhapia.com)

신행계시판

●한국우빠사나선원 3월 직장인반 개강-한국우빠사나선원이 5월 7일부터 직장인을 위한 수요일 저녁반을 개강한다. 저녁 7시 시작하는 직장인 저녁반은 우 스빠나 사야도의 법문집 (12연가와 위빠사나)를 교재로 우빠사나 수행의 기초과정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교육한다. 한국우빠사나선원의 수행방식은 몸을 알아차리는 기존의 수행방법 외에 마음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중점을 둔다. 특히 12연가를 통한 우빠사나 수행까지 할 수 있어 다양한 수행방법을 배울 수 있다. 수행기간은 6개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강좌가 이어진다. (02512-5258)

초 백련차 마사지, 108배, 백련꽃길 산책, 사찰음식 맛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41857-1864)

●월정사 걷기대회 수행학림 등 행사-평창 월정사가 5월 한달 간 걷기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5월 3~4일 제4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을 개최한다. 월정사 선원사 중대사(거암)적멸보궁을 둘러 한암 대종사의 수행법을 배우고 실수하는 시간을 가진다. 4~5일 오대산 전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10일 오전 10시부터는 오대산 천년의 숲 '옛길 따라 걷기 대회', 27일 오전 11시에는 탄허 대종사 선사학림 전국 휘호대회를 한글 한문 문인회 분야로 나눠 개최한다.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 월정사의 다채로운 행사 속에 꼭 빠져보자. (033332-666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주시는 본회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관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법원사 7인 큰스님 초청, 연등맞이 특별법회-대구 법원사가 7인 큰스님 초청, 연등맞이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법원사 주지 실상 스님이 5월 5일 법문을 열며, 관오사불교사회복지회 화주 자방 스님이 6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자안 스님이 7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정무 스님이 8일, 한국불교교통신대학장 활안 스님이 9일,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이 10일, 운문사 학강 일진 스님이 11일 법문에 나선다. 매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특별법회는 법원사 법당에서 열린다. 초파일 전야인 11일에는 저녁 7시 법문이 이어지고 인도상아가 하철영씨가 특별출연해 불교음악을 선사한다. (053766-3747)

●영양사 템플스테이-공주 영양사가 5~6월 상설템플스테이 일정을 발표했다. 5월 17~18일, 24~26일, 31일~6월 1일, 6~8일, 14~15일, 21~22일, 28~29일 열린다. 상설로 운영하는 12일 코스 외에도 3~4일, 3~4일, 5~6일, 7~8일 코스도 신청 가능하다. 좌선 걷기명상, 대비주 주력, 구절

불교 장에 복지여리더, 승가원

● 불 부처님오신날 축 ●

부처님 오신날, 불자님의 소망을 담아 밝히는 연등공양,
올 해에는 승가원에도 연등을 밝혀주세요.

자비나눔등

불자님의 소원과 장애가족의 희망을
함께 들어주는 연등!

분홍연등의 주인공 김인하 아동
(10세, 지적장애아)

구강근육이 발달하지 못해 가사없는 노래를 부를 수 밖에 없는 인하. 인하가 언어치료를 받고 또박또박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비나눔등 신청 승가원 법인사무국 02) 928-108 특별연등 (부처님오신날 한정) : 개인 10만원, 가족 20만원
1년등 : 개인 5만원, 가족 10만원 1일등 : 개인 1만원, 가족 3만원

• 자비나눔등 신청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승가원 홈페이지 사이버법당에 들어오시면 불자님의 연등 위치를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www.sgwon.or.kr